



“퇴장은 모두 내 책임” “나도 사람이기에”... 선수들에 사과

한국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가나전에서 퇴장당한 것을 선수들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벤투 감독은 카타르 도하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회복 훈련 전 자체 기자회견을 열어 “선수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경기에서 좋지 않은 감정을 보였다”고 했다.

한국 대표팀은 전날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게 2-3으로 패했다.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에 코너기 기회를 얻었으나 주심이 그대로 경기 종료로 선언했고, 벤투 감독은 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에 따라 벤투 감독은 3일 0시로 예정

“벤치에 내가 없어도 선수들 뭘 해야 할지 알아 이강인 실력 의심의 여지 없어... 매우 긍정적”

된 한국-포르투갈의 H조 조별리그 3차전을 벤치에서 지휘할 수 없다. 가나전 직후 기자회견에도 참석하지 못해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코치가 대신 자리했다. 이어 그는 “후반에 명확하지 않은 판정이 있었는데, 주심의 존중이 부족했다”며 “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모든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1무1패(승점 1점)인 한국이 16강에 나가려면 3일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리고 우루과이-가나 경기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꺾지 못하거나 가나 우루과이에 승리하면 한국은 탈락한다.

다음은 파울루 감독과의 일문일답.

- 포르투갈전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

“벤치에 앉지 못하는 건 최적인 상황이 아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팀은 그동안 해 온 것과 앞으로 해야 할 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회복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 포르투갈전에서 좋은 팀과 좋은 조직이 뭉치 한계까지 보여줄 것이다.”

-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의 선발 명단이 달랐는데, 포르투갈전 변화는.

“전체적으로 지켜본 뒤 선발 11명에 변화를 줄지 보겠다. 항상 그래왔듯 상대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장단점을 볼 것이다.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 짧지만 마지막 결정을 할 시간이 남았다. 최종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할 것이다.”

- 황희찬은 3차전에 출전할 수 있는가. 김민재의 몸 상태는.

“두 선수는 상황이 다르다. 김민재는(대표팀) 소집 전 소속팀에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나 세리에 A 리그 경기를 거의 다 뛰었다. 부상 후 회복과 훈련 중에도 희생정신으로 팀을 도우려는 의지를 보여 줬다. 황희찬은 소속팀에서 비교적 적은 경기를 뛰었다. 부상에도 카라바요를 뛰었다. 소집 이후 훈련에 제약이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두 선수 모두 상태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

- 이강인이 기회를 얻고 있다. 9월 소집부

터 고려한 것인지, 계획을 바꾼 것인지.

“이강인을 긴 시간 동안 관찰해 왔다. 2019년 아시안컵 이후 발렌시아에서 출전 횟수가 많지 않을 때도 이강인을 발탁했다. 실력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선수가 발전했고, 플레이 스타일도 지속해서 관찰하고 분석했다. 구단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며 결정했다. 월드컵 2경기에서 좋은 실력을 보였다. 우리 스타일에 잘 적응하고 녹아들었다.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다.”

- 경기 중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규정상 금지이므로 코치진과 소통하지 않을 생각이다. 나와 같이 훈련해서 코치진도 실력과 능력이 있다. 상황이 같진 않겠지만 그런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김학형기자hkhim@skyledaily.com

Qatar 2022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0일 10시 현재(한국시간)

일정	조	경기시간
11/21 (월)	A	0 카타르-에콰도르 2
	B	6 잉글랜드-이란 2
11/22 (화)	A	0 세네갈-네덜란드 2
	B	1 미국-웨일스 1
	C	1 아르헨티나-사우디아라비아 2
	D	0 덴마크-튀니지 0
11/23 (수)	C	0 멕시코-폴란드 0
	D	4 프랑스-호주 1
	F	0 모로코-크로아티아 0
	E	1 독일-일본 2
	E	7 스페인-코스타리카 0
11/24 (목)	F	1 벨기에-캐나다 0
	G	1 스위스-카메룬 0
	H	0 우루과이-대한민국 0
	H	3 포르투갈-가나 2
11/25 (금)	G	2 브라질-세르비아 0
	B	0 웨일스-이란 2
	A	1 카타르-세네갈 3
11/26 (토)	A	1 네덜란드-에콰도르 1
	B	0 잉글랜드-미국 0
	D	0 튀니지-호주 1
11/27 (일)	C	2 폴란드-사우디아라비아 0
	D	2 프랑스-덴마크 1
11/28 (월)	C	2 아르헨티나-멕시코 0
	E	0 일본-코스타리카 1
	F	0 벨기에-모로코 2
11/29 (화)	F	4 크로아티아-캐나다 1
	E	1 스페인-독일 1
	G	3 카메룬-세르비아 3
	H	2 대한민국-가나 3
11/30 (수)	G	1 브라질-스위스 0
	H	2 포르투갈-우루과이 0
	A	2 네덜란드-카타르 0
12/1 (목)	A	1 에콰도르-세네갈 2
	B	0 이란-미국 1
	B	0 웨일스-잉글랜드 3
12/2 (금)	D	0 튀니지-프랑스 00:00
	D	0 호주-덴마크 00:00
	C	0 사우디아라비아-멕시코 04:00
12/3 (토)	C	0 폴란드-아르헨티나 04:00
	F	0 캐나다-모로코 00:00
	F	0 크로아티아-벨기에 00:00
12/4 (일)	E	0 코스타리카-독일 04:00
	E	0 일본-스페인 04:00
	H	0 대한민국-포르투갈 00:00
12/5 (월)	H	0 가나-우루과이 00:00
	G	0 카메룬-브라질 04:00
	G	0 세르비아-스위스 04:00

래쉬포드·페르난데스... 펄펄 나는 맨유맨

래쉬포드, 웨일스전서 연속 3골 기록

페르난데스, 우루과이전서 16강 견인



래쉬포드가 웨일스와의 경기에서 골을 성공시킨 후 기뻐하고 있다. 뉴스시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선수들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믿고 쓰는 맨유

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번 월드컵 16강전 대진이 서서히 나오면서 소속 대표팀을

다음 라운드로 이끈 맨유 소속 선수들의 윤곽도 뚜렷해지고 있다.

잉글랜드 대표팀인 마커스 래쉬포드가 단연 돋보인다.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잉글랜드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같은 영연방 국가인 웨일스와 맞붙었다. 이 경기에서 25살인 래쉬포드는 연속 골을 넣어 잉글랜드의 3대0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그는 1966 잉글랜드 월드컵 이후 맨유 선수 가운데 월드컵에서 3골을 넣은 첫 선수가 됐다. 이는 1966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우승에 일조한 보비 찰튼 이후 대기록이다.

잉글랜드에 래쉬포드가 있다면 포르투갈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다. 페르난데스는 지난달 29일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맞아 2골을 몰아쳤다.

특히 두 번째 쐐기골은 후반 90분 추가시간에 나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브라질도 맨유 소속인 카케미루의 골을 앞세워 스위스를 1대0으로 제압했다. 앞서 세르비아를 꺾은 브라질은 남은 카메룬과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스카이텔레비전/뉴스시스

카타르, 92년 월드컵 사상 첫 개최국 '전패'

네덜란드전에 0-2 패
승점 0, 조 4위로 탈락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022 카타르 월드컵 A조 최종 3차전 네덜란드와 카타르의 경기에서 패한 카타르 선수들이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시스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하면서 0승 0무 3패를 기록했다. 승점을 챙기지 못해 조 4위로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여정을 마쳤다. 개최국이 승점을 따내지 못하고 전패로 탈락한 경우는 92년 월드컵 역사상 카타르가 처음이다.

카타르는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네덜란드에 0-2로 패했다. 피파 랭킹 8위 네덜란드의 코디 각포(아인트호벤)와 프랭크 더 용(바르셀로나)에 실점했다.

카타르 대표팀 선수들 모두 카타르 리그에 속한 국내파라는 점이 독으로 작용해 개최국으로서 이 같은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카타르는 월드컵 개최 전부터 자국 리그에 외국 선수들을 영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또한 대부분이 전성기를 한참 넘긴 노장들이라 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카타르의 피파 랭킹은 50위로 사우디아라비아(51위)나 가나(61위)에 비해 높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조별리그 A조 에콰도르와의 경기에서 0-2로 패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 세네갈전에서는 1-3으로 졌다.

고객의 마음에 웃음을! SK가스가 드리겠습니다

국내 LPG산업의 선두에 안주하지 않고 21세기의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 전진하는 SK가스가 잊지 않고 실천하는 것은 '고객만족' - SK가스는 국내 최고의 청정에너지 회사, 동아시아 에너지 메이저로의 Vision을 갖고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실천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World Best를 추구하는 SK가스 -



TEL: (02)6200-8114 FAX: (02)6200-8118
Homepage: http://www.skgas.co.kr